

# 김기문, 기술탈취 입증책임 분담 '상생협력법' 개정 요청

(중기중앙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국민의힘 김기문 대표와 간담회  
“신경제3불” 문제 관심·지원 당부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등도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사촌동생’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입법 보완 등을 부탁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기현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다.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가 사촌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기문 중앙회장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만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기문, 김기현 사실 이름만 비슷하게 아니라 시각도 비슷하다”고 운을 뗐다.

본관은 김기문 회장이 경주 김(金), 김기현 대표가 김해 김(金)이다. 이름의 앞글자 ‘기’는 김 회장이 터 기(基), 김 대표가 일어날 기(起)를 쓴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2번째)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민국이 산다. 사업체숫자로 따지면 99%, 고용숫자로 따지면 83%로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인 중소기업을 어떻게 잘 뒷받침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기문 회장과 생각이 똑같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김 회장을) 사촌형으로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화답했다. 김 회장은 “김 대표께서 2006년 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법적 토대를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15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해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노란우산공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기술탈취 발생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하도급업체가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김 대표가 2010년 당시 처음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지난 9일 발표한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재발이 아닌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늘려 안전여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한다”면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3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심과 국민의 힘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에 대해선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며 “비록 소수이지만 할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기업들이 자율적이며 희망을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열린 이날 타운홀 미

팅에는 국민의 힘에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경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자중기위 간사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권혁홍 한국제지공업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장 ▲조시영 한국중공업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공공업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 대표들은 김 대표 일행에게 ▲근로시간 유연화 ▲납품대금 제값 받기 ▲공공조달시장 ‘최저가 요소’ 개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산업단지 내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 업종 확대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완화 ▲SW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 총 29개의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박주봉 옴부즈만, 대구 中企 규제해결 나서

‘대구지역 S.O.S Talk 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이 대구지역에서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박주봉 옴부즈만(사진)은 13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역 소재 9개 중소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대구지역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과다로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코로나 19로 인한 금융권 대출 애로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사업자 보호 ▲신규 개발제품 시험인증 기준개선 ▲지방투자 촉진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 ▲재창업 기업의 신규보증 제한 완화 등의 애



로를 건의했다.

전기차구동 모터용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S기업은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데, 지원조건이 전년도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회계 중 재무상황을 개선해도 지원 시기가 너무 늦어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회계 연도 중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반기 또는 분기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산업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케노샤 베딩 신제품 3종 출시

시몬스가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2021 F/W 베딩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신제품 3종은 ▲베네딕트반테(VANTE) ▲베네딕트리던(LIDAWN) ▲화이트 컬렉션 티아나(TEANA)다.

신제품 모두 호텔 침구 소재인 ‘60수 샤틴 면’ 100%를 사용해 뛰어난 광택감과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한다. 여기에

시몬스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호텔 스타일 베딩을 찾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케노샤’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베딩, 퍼니처, 프래그런스, 베스 컬렉션 등의 다채로운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 소재를 적용해 감각적인 분위기는 물론 특급호텔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수면 환경을 선사한다.

/김승호 기자

## 기계장비·철강 등 😊 자동차·조선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고서 전기전자부품·바이오헬스 ‘맑음’ 일부 중후장대 산업 제외 반등 전망 ‘ESG 경영’ 대응 풀어야 할 숙제

기계장비, 철강, 전기전자부품, 바이오헬스, 가상융합기술(XR),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업종은 기상이 밝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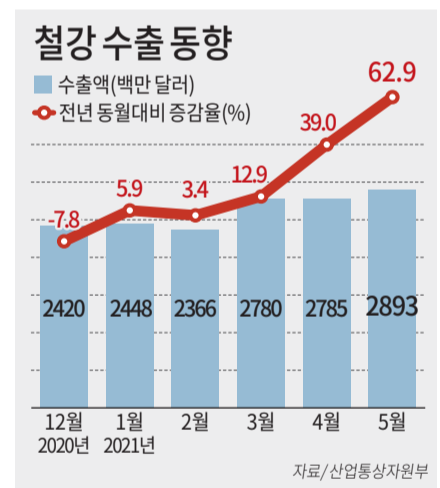
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구름이 조금 끼었다.

일부 중후장대 산업 제외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애로, 철강·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또 대세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놓고 중소벤처기업들의 대응도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3일 펴낸 ‘중소벤처기업 현장조사 브리프 2호’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제조업 가운데 ‘맑음’인 기계장비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 5월(출하는 4월) 기준으로 생산(17%), 출하(18.9%), 수출(25.9%)이 모두 증가했다.

기상이 밝은 철강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 증가세를 보이는 등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하며 호조세다.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알루미늄과 철판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의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는 2018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에 5월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다. 가전도 주요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프리미엄 생활가전도 꾸준히 판매가 늘고 있다.

바이오헬스와 비대면 분야인 XR, 콘텐츠 분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독특히 재미를 보고 있는 동시에 협황 전망도 밝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단키트의 글로벌 수요 증가로 21개월 연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1·4분기의 약품 수출은 무려 462.1%나 증가했다.

‘XR(eXtended Reality)’로도 불리는 가상융합기술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포괄하는 기술을 말한다. XR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차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제페토, 로블록스 등이 대표적이다.

콘텐츠 분야는 오프라인 영화관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온라인 영화 서비스를 비롯해 지식정보, 웹툰, 게임 등 비대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다. 특히 국내 웹툰시장 규모는 2010년 529억원에서 2020년엔 약 1조2000억원으로 10년간 20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애로도 적지 않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납품 물량 감소→자동차업계 경영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도 알루미늄·철판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거래처 발주 물량이 줄고, 운전자금 소모가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

또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친환경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협동화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전국민 지금 반대’ 흥남기 “재정운용, 정치 따라가는 것 아냐” /사진 뉴스스  
▲ 與 “김건희, 논문 염두에 두고 보조금 탔다면 사기죄”

▲ 유인태 “윤석열 중원 포기한 듯...이재명 하락 추세 지켜보아야”  
▲ 최재형, 국민의힘 조기입당에 “심도 있게 논의 중”



▲ 이재명 “방역지침 철저히 지켜 전면 봉쇄만은 막자” /사진 뉴스스  
▲ 한미훈런 앞두고... ‘美 핵전력 총괄’ 전략사령관 오늘 방한